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와 근대의 글쓰기

-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

이 재 봉*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글쓰기의 제도화와 문체적 특징 |
| II. 근대계몽기 ‘국문’ 논리와 문체적 특징 | III. 정치의 결합과 비꿈의 어투 |
| 1. 『미일신문』의 매체 성격과 ‘국문’ 논리 | 1. ‘옴음’의 논리와 정치의 수사학 |
| | 2. 비꿈의 어투와 풍자의 가능성 |
| | IV. 마무리 |

I. 머리말

근대계몽기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시대이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근대적 공론장으로 등장하면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가 근대계몽기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의 중심에는 이 시기에 새롭게 발견된 ‘국문(國文)’이 자리하고 있다. 박영효 이후 새로이 발견된 ‘국문(國文)’은 ‘한문(漢文)’을 ‘한자(漢字)’로 격하시키며 근대의 공식적인 문자체계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이 경우 국문(國文)은 이른바 ‘언문일치’라는, 입말과 글말의 일치를 염두에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둔 것이고, 이 순간 ‘서울’의 말은 다른 지방어를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예약하게 된다. 신문이나 잡지 등 근대의 대표적인 매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¹⁾도 이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었다.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문은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독립신문』, 『미일신문』 등이 국문(國文)으로 쓰여지는 최초의 매체이고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들에 실린 글들은 근대적 문체 형성과 글쓰기 방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에는 논설, 연설(기념식사 포함), 편지, 대화, 문답, 사건기사, 상소, 조칙, 판결, 훈령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히 논설, 연설, 사건기사, 대화, 문답 등은 쉽게 서사라는 양식과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근대문학이 신문을 포함한 ‘매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대문학과 매체의 관계를 따지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이 둘의 연관을 정밀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매체의 여러 가지 특성이 먼저 파악되어야 하겠고 그 바탕 위에서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기 어렵다는 점이 활발한 연구를 저해하는 한 요인일 것이다. 또 서사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어 최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문 ‘논설’ 역시, 매체의 특성과 영향을 강조하지만 그 맥락에서 독립시켜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렇게 되면 근대적 계몽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이들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오류에 빠지기

1) 한 연구자에 따르면, 190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인이 운영했던 인쇄소는 서울에 28개소, 진주와 대구, 인천에 각 1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김봉희, 『개화기 서적문화연구』(이화여대 출판부, 1999), 32~41쪽.

2) 이 글에서 입말과 글말의 관계를 따져 언문일치의 논리와 연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글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다른 기회에 따져보고자 한다.

십상이다.

모든 글이란 구체적인 맥락 속에 존재한다. 근대 초기의 글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 방향이나 의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정황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 당시의 매체에 발표된 글들이다. 사회·문화적 변화가 극심했던 우리 근대의 경우 이와 같은 성격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고려한 꼼꼼한 읽기야말로 텍스트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일 것이며 그래야만 비로소 그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근대계몽기의 『미일신문』에 나타난 글쓰기와 그 의미를 따져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한 근대적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근대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한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문제제기적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II. 근대계몽기 ‘국문’ 논리와 문체적 특징

1. 『미일신문』의 매체 성격과 ‘국문’ 논리

『미일신문』은 배재학당의 학생회라 할 수 있는 ‘협성회’가 창간한 신문이다. 물론 『미일신문』이 창간되기 이전 주간으로 『협성회회보』가 발간되었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일간으로 재창간한 신문이 『미일신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³⁾. 협성회는 이미 알려진 대로 1896년 11월 30일에 결성된 배재학당의 학생회였고 이 과정에 서재필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⁴⁾ 협성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서기, 회계, 사찰, 사적, 제

3) 그러므로 이 글에서 『미일신문』이라 함은 『협성회회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4) 정진석, 『협성회회보·미일신문 論攷』, 『한국언론사 연구』(일조각, 1983), 199쪽.

의 각 2인의 임원을 두었고 1898년 1월 당시 회원은 138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재학당 학생이 아니지만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찬성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54명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었다.⁵⁾ 그리고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비혼 디로 유익한 말이 잇스면 전국 동포의게 꺾치 알게 하고 또한 우리의 적은 정성으로 전국 동포를 권면하야 서로 친목 하고 일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집안을 보호⁶⁾한다는 명분으로 『협성회회보』를 창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문’을 표기 수단으로 선택한다. 물론 ‘국문’의 선택에는 박영효, 유길준 등을 거치면서 발견된 ‘국문’과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하여야 하며 ‘조선국문이 한문보다 나흔 것⁷⁾이라는 『독립신문』의 논리 등이 전제되어 있고 자주독립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부대신 신괴션씨의 상쇼를 들으니 머리 싸고 양복 넘는 거시 기화 혼 사름이 야만이 되는 시초요 조선 세조대왕이 몬드신 조선 글 쓰는 거슨 사름을 변하여 즘승을 몬든 거시라 하였고 -중 략- 국문이란 거슨 조선 글이요 세조대왕씨셔 몬드신 거시라 한문보다 빅배가 낮고 편리혼 즉 내 나라에 조흔 게 잇스면 그거슬 쓰는 거시 올치 이 쓰는 일을 사름을 즘승을 몬드는 것과 꺾다고 하엿스니 선왕의 디접도 아니요 조선 사름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 청국 정삭을 도로 밧들자 하엿스니 청국 황태

5) 회중잡보, 『협성회회보』창간호, 1898. 1. 1. 여기에 따르면 제4차 임원으로는 회장 이익채, 부회장 노병선, 서기 오근선, 이응진, 회계 류영석, 민찬호, 사찰 윤창렬, 문경호, 사적 김규찬 정대회, 제의 이병철, 권정식 등이다. 협성회에서는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성회회보』 창간호의 회중잡보에는 ‘니츄구씨 이원 니홍직씨 이원 정기준씨 이원 신태정씨 이원 영익 환씨 일원 니창혁 김동표 박형모 니홍선 김면규 최석우 니용선 김윤조 김규환 현 학녕 제씨 각 팔십전씩 한응순씨 일원 합 십팔원을 모금했다고 밝히고 있다.

6) 논설, 『협성회회보』창간호, 1898. 1. 1. (표기는 원문대로 하였고 띄어쓰기만 오늘에 맞게 고쳤다. 이하 마찬가지)

7) 논설, 『독립신문』창간호, 1896. 4. 7.

를 그러케 섬기고 스폰 뜻시 잇스면 청국으로 가서 청국 신하 되는 거
시 맞당호고⁸⁾

위의 인용에서 보면 ‘국문’의 당위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부대신 신기선의 상소는 자못 심각한 반향을 불러 오고 있다. 청과의 단절이 자주독립의 근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국의 문자인 한문을 버리고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계몽적 지식인의 신념 체계를 이루는 기본적 바탕이다. 이는 또 그들이 지향했던 역사적 방향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국문’을 버리고 한문을 쓰는 것은 곧 선왕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이는 중국의 문명을 섬기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 청국의 신하라는 논리로 신기선의 상소를 신랄한 어조로 반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범학교 학생들이 모두 퇴학하겠다고 나서며, 전국 각지에서도 신기선을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사에 답지한다.⁹⁾

‘국문’을 이런 논리로 파악하는 글은 『민일신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향간에 문닷지고 드러안저 니외국 형편이 엇더흔지 모르고 다만 몇
천년 내려오는 지나(지금 청국) 스기나 공부호던 사름을 문필노 취호여

8) 『독립신문』26호, 1896. 6. 4. 잡보. 여기서 ‘세조대왕’은 ‘세종대왕’의 오석이다.

9) 사범학교 학도들이 학부에 청원서를 □호고 모도 퇴학하겠다고 호였는디 ㅅㄹ인 즉 시로한 학부대신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이 조선 글을 비호는 거슨 사름을 증승을 만드는 게라 호 연고더라 우리 생각에는 그 지각업는 사름의 말을 탄힐 거시 업시 학도들이 학부에 가서 대신의게 연설들을 호여 씬을 좀 ㅅ어 주는 거시 맞당할 뜻 호더라.(□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임. 『독립신문』29, 1896. 6. 11. 잡보. 이 날짜의 논설 역시 신기선과 연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인천 제물포 백성들의 편지(『독립신문』, 28. 1896. 6. 9. 잡보), 양주 정씨의 편지(『독립신문』, 30. 1896. 5. 26. 잡보. 이는 앞의 날짜와 계산하여 보면 6월 13일이 되어야 정확하다. 그런데 5월 26일로 기록된 것은 인쇄상의 잘못으로 보인다.) 춘천부 관찰사 리지곤의 말과 호남 최씨의 편지(『독립신문』32. 1896. 6. 18. 잡보) 등이 모두 신기선을 비판하고 있다.

다가 조정 관리를 치위 정부 일을 하게하면 외교와 니치 상에 드러 일이 있으면 시부표를 가지고 각국 공영스들과 담판을 하여 보겠소 티서 제국에 스신을 가면 한문을 가지고 형세하게소 중추원에 드러가서 한당 송 사기를 인용하여 시무를 의론하겠소¹⁰⁾

이 논리에 따르면 한문을 공부하는 것은 세계의 형편에 눈과 귀를 닫는 것과 같다. 또한 위의 인용에서 한문은 오늘날 세계 어디서도 쓸모없는 문자체계라는 인식이 과장된 수사로 나타나 있다. 한문의 폐단에 대한 이런 인식은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언어적 상황이 우리의 ‘국문’ 발견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¹¹⁾ 청국에서도 한문의 폐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¹²⁾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형편은 자기나라의 문자로 자기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선 역시 그래야만 문명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문’이 문명의 기본이라는 아래의 인용문은 당시 “국문”에 대한 인식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문이 나라 문명홀 근본)

본디 국문을 우리 나라 세종디왕씨옵서 지으샤 국민남녀의 편리히 쓰기를 주장하심이니 후세를 기리 생각하신 선왕의 유탉이 진실노 무궁하신지라 빅성이 되어 성은을 사모하느 도리로만 말하여도 이 글을 공경하야 만드러 쓰는 거시 맞당하거늘 하물며 이긋치 편리한 거슬 지금껏 폐하였던 모양이니 엇지 인식지 안으리오 - 중략 만일 그러치 아니하야 널니 ㄱㄷㅅ면 국중 남녀귀천이 함찌 교화에 져서 모도 공즈님의

10) 론설, 『미일신문』, 1898. 6. 22.

11)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소명출판, 2005), 59~73쪽 참조.

12) “근자에 청국에 유명헌 선비들이 말하기를 한문이 과히 어려워셔 이 어두운 빅성들을 씨우치자면 이 글 가지고서는 홀 슈 업다고 하야 시로 서양 글자와 우리 나라 국문을 참작하야 구차로이 글을 만드러 가지고 국중에 통용하기를 원하느 사름이 여러히”r(국문이 나라 문명홀 근본), 『미일신문』60, 1898. 6. 17.

데즈가 되었을 터이니 오늘날 유교가 이곳치 쇠해지는 아니하였을지라 세계에 새로 발명헌 학문으로 말할지라도 나라이 기명하다 칭하는 것은 다만 글 일근 사람 몇 천 명 몇 만 명으로만 인연하야 하는 말이 아니라 전국에 남녀로소와 상하귀천을 통계하야 비교헌 연후에 혹 문명국이라 반기화국이라 야만국이라 칭하는 법이기로 덕국갓헌 나라에는 남녀간 오류세된 아회가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면 순검이 잡아다가 억지로 학교에 너코 그 부모를 벌 써우는 법이 잇스니 이런 법이 다 그 나라를 문명케 하려 흠이라 -중략- 불과 몇시동에 언문을 써쳐가지고 만권 서적을 못 불(불의 오식-인용자) 것이 업시 즉시 학문을 비호기에 더디고 솟흠이 었지 비교하리오 국문은 진실노 세계에 드문 글이라 이 글을 써쓰면 글시 못쓰고 칙 못 보는 사람이 온 나라에 몇치 되지 안을지랴¹³⁾

이 시기 신문의 논설에는 대개 제목이 붙어 있지 않는 데 비해 이 글에는 특정한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문명/반개화/야만이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도식이 “국문”과 이로 인한 교육의 유무로 나누어진다는 인식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의 도식을 받아들였고 이와 같은 인식이 개화 지식인 사이에 광범하게 유포되었던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스스로 ‘반개화’라 한 것은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의 내면화라는 지적¹⁴⁾이 이미 있지만 위의 글에서 조선 역시 ‘반개화국’이라는 인식 또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문명국’이었고, 조선은 반개화국이었다.

이에 비해 청국은 한자에 얽매여 있는 야만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서구 여러 제국의 침략에 시달리며 많은 땅을 조차지로 내주었던 청의 역사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류큐(오키나와)와 대만을 빼앗기고,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 조차지 등의 명목으로 많

13) 「(국문이 나라 문명할 근본)」, 『미일신문』60, 1898. 6. 17.

14) 고모리 요이치는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이라는 틀로 일본의 근대를 분석하고 있다.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 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삼인, 2002).

은 땅을 빼앗긴 중국은 ‘즈기 나라 싸흘 온전히 회복’한 ‘대한’에 비해 ‘구라과 세갑절’의 땅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 결과 ‘남은 것도 몇칠 지탕 흘지 모르겟스니 춤 줄 것도 만커니와 인심도 후후¹⁵⁾더라는 야유를 받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청국은 ‘중시 옛법만 직히고 기명호기를 묘화 아니호미 필경 나라히 흥왕호고 빅성이 문명홀 놀이 업슬 터’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청국 모양으로 되지 말고 일본긋치 진보호¹⁶⁾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문(한자)는 더 이상 문명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역사상 수명을 다한 소멸의 운명을 맞고 있는 언어이다. 따라서 ‘국문’은 그 존재 자체로 크나큰 은혜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명어로 바꾸어 나가야 할 우리의 언어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2. 글쓰기의 제도화와 문체적 특징

‘국문’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한 글쓰기는 말하기와 더불어 근대계몽기 새로운 문화현상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바야흐로 근대적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글을 써서 신문이라는 공론장에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시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신문이라는 제도가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독립신문』과 『미일신문』 등에서는 신문사에 많은 독자들이 투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반드시 ‘국문’으로 하되 거주와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¹⁷⁾ 이는 이들 신문의 문자 선택논리에 동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15) 『외국통신』, 『미일신문』16, 1898. 4. 27.

16) 『론설』, 『미일신문』52, 1898. 6. 8. 이 외에도 『독립신문』20, 1896. 5. 12. 논설에서는 청나라 사람들을 여러 각도에서 비판한 뒤, ‘조선 사람이 청인의게 비홀 거슨 호나가 업는 거시 청국 기화된 모양이 조선만도 못홀지라’라 평가하는 구절에서는 근대 개화 지식인들이 스스로 청국을 야만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 『형성회회보』5호와 6호에서는 ‘회중잡보’란을 통하여 ‘○누구시던지 각종 학문에 유조흔 글을 지어 보니시면 우리 회보에 기지호겟습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7호에서부터는 ‘○누구시던지 론설을 지어 보니실 제에 국문으로 쓰고 거주

자신의 신분을 공론장에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익명의 글쓰기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대 신문이 요구하는 신원의 노출은 획기적인 것이다. 자신의 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면서 문학적 입장으로 치환시켜 본다면 근대적 ‘작가’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이제 공식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 ① 스월 이십 팔일 경무청에서 경무 학원 오십여 명을 시험하야 순검을 뽑는디 먼저 **의견서를 지여 쓰라** 하고 또 이왕 경무 공부하던 장정을 차례로 강을 바다 월등한 이 홍지춘 김준환 유리춘 문신교 장인근 등을 뽑아 순검을 식혀스니 이답에도 응당 경무 공부한 학원으로만 순검을 쓸 듯 하더라¹⁸⁾
- ② 법무 주스 훈 자리가 뷔여 졸업생 중에서 취지하여 택한단 말은 임의 기지하였거니와 지금 드른 즉 허부에서 모든 졸업생을 모호고 처음에 물문을 감독 식인 후에 **또 론을 지였고** 최말엔 근일 경향에 절발지환이 심하여 빅성이 안도치 못하고 핑식이 릉히 통치 못하니 엇지 하여야 그 도적들을 귀화시켜 민국이 갖치 티평할는지 원컨디 그 계책을 듯고져 한다는 문제를 니여 시험하는디 그 중에 **법률과 작문과 의향**이 출중헌 자는 흥용표인 고로 흥씨로 주스를 턱정하였스즉 이번 일에는 법무디신 리유인씨가 매우 공평케 하였더라.¹⁹⁾
- ③ ○학부에서 관립 한어학교 학원을 더 뽑을 터이니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는 본월 일일노 위시하여 동월 십일 니로 본부에 품고하고 십이일에 본부로 나아가 입학시험을 바들이 가하다 하였는

와 성명을 자세히 적어 보나시면 본 회보에 기지하되 만일 성명니기를 원치 아니하면 성명은 쓰지 안코 글만 기지하겠소'라 하여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

18) 『독립신문』15, 1896. 5. 9.

19) 『민일신문』22, 1898. 5. 4. 잡보.

디

○시험하는 규목은 나히 십륙세 이상 이십오세 이하로 하고 국문
과 한문에 **독서와 작문**이오 쓰품평장과 보증장이 잇더라²⁰⁾

- ④ 민완식은 독서에 낙과하였다가 추후 **더독 더작 더거**하여 다시 씀
혔고 현형동은 신테검스에 신병으로 낙과되었다가 다시 속으로
선거되었고 이석타는 독서에 불통하여 낙과하였다가 일흠을 석귀
로 곳치고 다시 하였스니 이것만 보아도 공정치 못흔 증거가 분명
호²¹⁾(이상 강조, 인용자)

인용문 ①과 ②에 나타난 ‘의견서’와 ‘작문’은 순검과 법부 주사를 뽑는 시험에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정부의 관리를 뽑는 제도로 과거라는 글쓰기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의견서와 작문은 그 성격이 달라 보인다. 순검을 뽑는 데는 근대식 경찰학교라 할 수 있는 경우 공부하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부 주사를 뽑는 데는 법률 학교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 ③에서는 근대 학교의 입학시험에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근대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겠지만²²⁾ 글쓰기는 이제 입학시험에 등장할 만큼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립 한어학교의 경우 입학 연령이 16세 이상, 2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 하위

20) 『미일신문』110, 1898. 9. 5. 관보.

21) 『미일신문』70, 1898. 6. 29. 잡보.

22) 초기의 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19, 500년 왕조의 종말』(한길사, 2004), 236~243쪽 및 이승원의 『학교의 탄생』(휴머니스트, 2005), 36~37쪽 등 참조. 또한 『독립신문』, 1896. 9. 8. 잡보에는 일본인이 세운 ‘경성학당’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10세 이상의 사람들을 입학시험없이 모집하며 ‘돈은 밧지 안코 지필묵을 급’한다고 하고 있다.

과정의 학교에서도 글쓰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립 한성스범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데 입학할 원하는 사람의 ‘나흔 이십 이세 이상과 스십세 이하’로 하고 입학시험과목으로 ‘국문의 글 넓히고 글짓고 한문의 글 넓히고 글 짓고 본국 디리와 본국 스기’²³⁾로 한다는 기사도 보인다. 이로 미루어 입학시험에서의 글짓기는 ‘국문’과 ‘한문’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인용문 ④에서는 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부의 사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미일신문사 사장’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분이다. 여기서 보면 당시의 시험에서 대독·대작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일신문사 사장’에게 편지한 이들 역시 사관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부에 몇 차례 편지를 보내 문의했지만 대답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확보한 몇 가지 사례를 증거로 들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편지에서, 수백 명의 응시자 중 부정행위를 밝힐 총대위원에 뽑힌 경위와 자신들의 이름까지 모두 밝혀 두고 있다. 이런 사건은 근대 초기 시험제도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하급관리 등용에서도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²⁴⁾ 또한 글쓰기는 나라 다스리는 것에 비유되어 ‘긴급지 아니 혼 글’ ‘량반의 디체를 보존하려는 글 등은 쓰지 말아야 하며 ‘님군을 놓

23) 『독립신문』 86, 1896. 10. 22. 잡보.

24) 그런데 당시에는 ‘감옥’도 근대 학교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미일신문』 111호 잡보에서는 ‘립병길’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일어와 한어를 가르치며 죄수들을 교화하려 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또 이광린은 1902년 당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범들이 종로감옥에서 학교를 설치하고 그 안에 서적실을 마련하여 죄수들을 교육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감방 하나를 교실로 장하여 어린 죄수들에게 한글, 동국역사, 명심보감, 글쓰기, 영어, 일어, 산학(算學) 등을 가르쳤으며, 한글로 된 책들 중에는 『신약전서』 110회, 『그리스도 신문』 70회, 『국문독본』 67회, 『스민필지』 51회, 『턴로력당』 50회 등의 대출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광린, 『舊韓末 獄中에서의 基督敎 信仰』, 『韓國開化史의 諸問題』(一潮閣, 1987), 217~238 쪽.

히고 빅성을 교육하여 나라를 부강케' 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되기도 한다.²⁵⁾

그런데 ‘국문’이 새로운 표기 수단으로 부각될 경우 이전과는 다른 글 쓰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선 국문이 입말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글쓰기가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글말과 입말의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국문’을 주장하는 근대 지식인의 일반적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의 선택은 글말과 입말의 일치, 곧 언문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의미의 전달이 쉬워 상하귀천이 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관념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이는 이제부터의 글쓰기가 입말과 글말의 상호 영향 속에서 이 양자의 특징이 혼종하는 문체가 필연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나타난 당시 국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문이 선택되어 신문이라는 매체에 인쇄되지만 인쇄된 문자가 지니는 시각성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신문이란 기본적으로 읽기 위한 매체이다. 그렇지만 이 당시 선택된 ‘국문’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단락 구분 등은 ‘읽기 중심’의 시각성이 고려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황제’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락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 ‘황제’와 연관된 경우에 단락을 바꾸는 것은 유길준의 품의로 이루어진 ‘갑오경장 칙서’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²⁷⁾으

25) 『미일신문』68, 1898. 6. 27. 논설.

26) 그러나 ‘국문’의 선택이 이와 같은 관념적 욕망을 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문’이나 ‘한문’ 또는 ‘국한문’의 선택은 결국 ‘독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지식인의 대부분은 이미 한문에 익숙해 있었고 ‘국문’으로 쓰여진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 결과 『황성신문』과 『대한미일신보』에서처럼 한문이 위주가 된 ‘국한문’이 선택되기도 했던 것이다.

로 이 당시 신문매체에도 그대로 적용된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신문에서 단락은 다른 기사로 넘어가거나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구분되고 있어 오히려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독립신문』은 애초 서로 다른 기사에서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론설, 관보, 잡보 등의 표제만이 굵은 활자로 행 가운데 인쇄되어 있을 뿐 같은 관보나 잡보에서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단순한 행갈이만 되어 있을 뿐이다. 1896년 6월 6일자인 27호에 이르러서야 ‘○’와 같은 표지로 서로 다른 기사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자연히 문장부호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문장이 길어지는 특징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신문을 접하는 방식에 듣기와 읽기가 혼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당시 국문 선택의 논리는 글말을 입말에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기사 작성은 ‘소문’을 채탐하는 방식이 위주였고 그 결과 글쓰기에 구술성의 흔적이 강하게 침투된다. 이 때문에 ‘듣는 대로 기재’한다는 의식이 부각되면서 ‘~(하)더라’(잡보), ‘~(하)노라’(논설), ‘~(합/뵈)시다’(연설) 등이 중요한 종결어미로 선택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신문의 유통과도 연관되어 있다. 『독립신문』의 독자가 60만 명에 이르렀다는 서재필의 회고²⁸⁾는 사실,

27) 황호덕, 앞의 책, 193~194쪽 참조. 또 ‘하느님’의 경우에도 행갈이(『미일신문』37, 1896. 5. 21. 논설) 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 신문을 당시 『미일신문』을 발행했던 이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미일신문』 광고에서도 행갈이를 찾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의 광고가 136호까지는 행갈이가 되어 있지 않지만 138호부터는 행갈이가 되어 있다. “○본샤 신문 값이 혼장 갑 엽 너 푼 혼돌 선급에 엽 일곱 돈 석돌 선급에 엽 두 량 여섯돌 선급 엽 석 량 아홉 돈 일년 선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너는 것은 우테갑 병하야 미삭에 엽전 일곱 돈 푼이오니 스방 / 텨군즈는 그리들 아시오” 여기서 ‘텨군자’를 행갈이 한 것은 이들 독자들을 배려했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8) 이재봉, 「서간의 형식과 고백의 형식-1910년대 고백담론과 관련하여」, 『한국문학논총』40(한국문학회, 2005. 8) 참조.

신문이란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신문』 1898년 11월 19일의 논설에는 양구 군수가 글을 아는 사람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신문을 읽게 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와 유사하게 부산의 초량에서 한 유지각한 사람이 신문을 읽어준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1898년 2월 12일자 『협성회회보』 내보에는 ‘신문보는 소리도 듯기 실타’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며 논설을 쓰면서도 ‘우리 대한 인민들은 다 드르시오’²⁹⁾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신문이란 읽는(보는) 것이라기보다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로 한 연구자는 ‘읽어주기’를 당시 신문 구독 방식의 주요 형태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³⁰⁾ 이처럼 읽기와 듣기가 혼재하면서 근대 신문 특유의 어미를 만들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문과의 착종으로 독특한 문장이 나타난다. ‘국문’이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공식적인 문자였던 한문의 위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더욱이 신문을 발행했던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은 신채호 등의 예에서 보듯 한문의 소양이 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삼밭 가운데 있는 쭉은 스스로 꺾어지고 벼루 먹게 가까운 자는 검어지기’³¹⁾ 쉽거나 ‘섬희 누어 담을 맞보느니’³²⁾처럼 한자성어를 ‘국문’으로 풀어쓰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비유법으로 근대적 사상을 담아내는 글쓰기로 이어진다. ‘몸’과 ‘집’ 등이 흔히 나라를 비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사람 흔 몸에 발은 비록 나아가라
 하나 이목이 들고보지 안이흐며
 다리와 팔이 움족이지 안이흐면
 발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목과 다리와 팔이 비록
 나아 가고자 하나
 말(발의 오식:인용자)이 병이 있스즉 이

29) 『미일신문』117, 1898. 9. 14. 논설

30) 채백, 『개화기 한국신문의 간접적 구독방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4(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8), 237~240 쪽.

31) 『협성회회보』4, 1898. 1. 25. 논설

32) 『미일신문』117, 1898. 9. 14. 논설.

목과 다리와 팔이 엇지 거러가리요 정부는 우리 대황제 폐하의 명령을
 밧드러 흥흥야 신임흥는 이목과 고굉이오 우리 인민은 곳 황상의 밧이
 라 비록 그중 아래에 잇스나 능히 전국에 무거움을 싣느니 밧업는 사름
 이 엇지 나아가며 빅성업는 나라이 엇지 진보하리오³³⁾

위의 인용문은 1898년 9월 1일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개국기원 경축회
 에서 행한 이상재의 연설이다. 이 행사에는 윤치호가 개회사를 하고 정
 교와 이상재가 연설했는데 그 연설의 대강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
 상재는 인간의 ‘몸’을 국가에 비유하여 각 신체부위를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에 대응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황제를 비롯하여 신하들과 백성
 들의 일치단결을 촉구하고 있는 이 글은 연설문이라는 특성상 어휘 선
 택은 비교적 입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목’, ‘고굉’ 등의
 한자어 사용과 더불어 문장은 한문 문장 번역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
 는다. 이런 현상은 ‘국문’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들이 성장했던 환경이나
 지식 체계가 한문에서 그리 벗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문과 국문의 착종은 전통적인 수사법을 동원하는 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와 같은 글들은 전통적인 형식에 근대적 사상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기 쉬운
 특징도 지니고 있다.

당시의 신문이 지닌 이와 같은 문체적 특성은 사실 매체의 특징만이
 고려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신문이 상상하고 있었던 가상의 독자가 어
 떤 존재였는가에 따라 문체적 특성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
 문’이 위주가 된 『황성신문』의 언어 선택 논리나 ‘한문’을 위주로 하면서
 도 ‘국문’을 번갈아 선택했던 『대한매일신보』 등의 논리를 함께 살필 때
 더욱 정밀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³⁴⁾

33) 『미일신문』109, 1898. 9. 3. 잡보.

34) 이 부분은 이 글의 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필자의 역량 또한 아직 이에 미치
 지 못한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 이 문제를 따져볼 생각이다.

Ⅲ. 정치의 결합과 비꿈의 어투

1. ‘옳음’의 논리와 정치의 수사학

근대 초기의 ‘국문’ 글쓰기는 당시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기사 작성 원칙은 ‘옳은 일’에 두어져 있고 이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옳은 일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문명개화의 논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사건과 인물, 사상 등은 철저하게 극복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공존하던 이 시기에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색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옳은 것 밋피 무서운 거시 업다는 말을 이전 글에도 더러 보 앓고 혹 낱흔 의론하는 좌석에서도 들었서 그러호되 춤 옳흔 거시 데일 무서운 표적인즉 지금이야 우리가 현저히 보겄도다 근자에 우리가 신문을 가지고 옳흔 의리를 잡아 거릿길 거시 업시 글흔 거슬 싸라가며 시비를 호고 안저 본즉 외면으로는 우리가 세계를 모두 반디호는 모양이라 첫지 정부 안에 글흔 일호는 관원들과 반디오 들지 관찰사와 지방관 중에 탐학호는 관리들과 반디오 셋지 경향간 빅성 중에 악흔 형실과 협잡호는 란류들과 반디오 넷지 나라 형편은 엇지 되었던지 이전 풍습을 직혀 어두은 더로 지니 가자는 랑반들과 반디오 다섯지 외국 관인 중에 공범경계는 하여 호던지 대한 것을 갖다가 즈고 나라 물건을 만들자는 외교관들과 반디오 여섯지 외국 거류민 중에 대한 빅성을 혹 무죄히 싸린다던지 혹 죽인다던지 혹 무리히 디접호는 친구들과도 반디이니 이거슬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계를 모두 반디호는지라 세계를 다 반디호는즉 형세가 불가불 외롭고 위티호 법이라 그러호즉 우리는 무어슬 밋고 이 러케 반디호나뇨 다만 밋는 거슨 옳흔 것 호나뿐이라 원천강

하느님이 옳흔 거슬 해롭게 아니 호심을 썩러지게 아는 고로 오늘날 이 잔악흔 옳흔 목적이 우리를 릉히 보호호 줄 미오미 열심히 옳흔 목적을 위호야 여일히 이 강흔 거슬 반디하여 왓스미 실상을 심각호면 이

반디되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편당이 되니 실노 약혼 거시 강호야지
 논지라 디더 세상에 누가 올코 글흔 거슬 분간이야 못흐리오마는 - 중
 략 - 이거슬 보면 세상에 올흔 것 밧긔 강호고 무셔운 거시 업논지라
 우리는 바라노니 아모던지 올흔 목적만 가지거든 외롭고 약호다고 분발
 혼 의리를 죽이지 말고 다만 내가 올흔 일만 힘써 힘힐 것 곳흐면 세상
 에 나긔치 강호 사름은 업다고 믿음을 곳건히 먹어 물과 불을 헤아리지
 말고 올흔 일이어든 쫓가지 나아가 봅세다³⁵⁾

다소 길어졌지만 위 인용문에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명확한 이분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선악의 이분법과 다르지 않으며, 위에서 보듯 밧과 어둠의 이분법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물론 이 논리 속에는 일심(합심), 의리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죽어도 불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군스가 되어 나라를 위호여 죽는 거시 세상에 영광³⁶⁾이며 ‘나라를 위호야 죽어볼 심각³⁷⁾을 해야 하고 ‘대한에 관계되는 일은 일심으로 도아 서로 보호호며 서로 역성호야 죽기까지라도 단정코 힘씩³⁸⁾해야 한다는 논리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으로 포섭된다. 예컨대, 집을 팔아 만민공동회에 보조금으로 낸 과부, 고등재판소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돈 칠푼을 보조한 눈먼 걸인, 자신은 나가지 못하면서 아들을 만민공동회로 내보낸 과부³⁹⁾, 나아가서는 만민공동회에 편지한 11세 된 아이, 독립협회 회원 17인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돈 4원을 기부한 기생, 걸인에게까지 식사를 제공한 장국밥집 주인⁴⁰⁾ 심지어 재물을 빼앗다가 그들이 충군애국의 정신으로 만민공동회에 참석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는 물건을 돌려 줄 뿐 아니라 스스로 회개한 도적⁴¹⁾까

35) 『태일신문』37, 1898. 5. 21. 논설
 36) 『태일신문』38, 1898. 5. 23. 논설
 37) 『태일신문』41. 1898. 5. 26. 논설
 38) 『태일신문』42, 1898. 5. 27. 논설
 39) 『태일신문』166, 1898. 11. 11. 논설 및 잡보
 40) 『태일신문』169, 1898. 11. 15. 잡보

지도 ‘동포, 형제, 자매’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만민공동회 중 보부상에게 맞아 죽은 ‘김덕구’의 사건에서 절정에 달한다.

- ① 일전 만민공동회에서 총디위원을 보니여 일전에 동포들 몇 사람이 부상들을 쫓다가 중상하야 죽은 사람을 쌍룡당에 묻고 왔는디 총디위원의 말이 그 마져 죽은 사람을 자서히 슬퍼 본즉 신 김는 송곳 서히 잇고 주머니 속에 던당포 열 아홉장이 들었스니 지극히 간란흔 거슨 알겜고 싱이난 신 김는 장사라 - 중략 - 그 무덤 압희 포더를 세웁스되 거쥬 성명은 모로논 고로 울을 의썸만 표디 끄헤 써셔 세우니⁴²⁾
- ② ○일전에 삼기서 부상에게 마져 죽은 김덕구 씨를 치장하 량으로 독립협회에서 의쥬금을 거두오니 총의를 스랑하시는 텃군즈는 음력 본월 십칠일니로 독립협회 스무소로 다쇼간 보니시기를 바라오
 ◎부상에게 마져 죽은 김덕구 씨를 만민공동회에서 총디위원이 이오기 넘어 쌍룡당에 장스를 하엿더니 김덕구 씨의 안희 명동사는 고소스가 즈긔 남편의 시체를 차져 가겜다고 서셔에 소지 하엿기로 서셔에서 고소스를 만민공동회로 지휘하야 보내엿다더라⁴³⁾
- ③ ●독립협회 청첩이 스민에 다니는디 음력 십월 십팔일에 부상들의 게 마져죽은 김덕구 씨의 안장을 흘 터인디 므룣 총이흔 동포 형제들은 이날 상오 아홉시에 종료에 모혀 흠씨 호상케 하자 하엿다더라⁴⁴⁾
- ④ ●이들 일일에 독립협회에서 총디위원 양홍목 홍정후 리승만 삼씨

41) 『민일신문』172, 1898. 11. 18. 잡보
 42) 『민일신문』178, 1898. 11. 25. 잡보
 43) 『민일신문』180, 1898. 11. 28. 잡보
 44) 『민일신문』184, 1898. 12. 2. 잡보

를 경무청에 보니여 말하기를 부상에게 마저 죽은 김덕구 씨를
 오늘 익오기 넘어 쌍룡덩 등지에 장소를 지낼 터인디 그 싸흘
 허가를 허야 주고 산난 순검의게 물금히게 허야 달나고 허엿는
 디 경무청에서 다 허학허엿다더라⁴⁵⁾

인용문 ①에서는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보부상에게 맞아 죽었는데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옳을 의(義)’자만 쓰고 장례를 치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인용문 ②에서는 어느 새 그 신원이 밝혀져 있는데, 이는 잡보의 내용으로 미루어 김덕구의 아내인 ‘고소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①에서 볼 수 있듯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고소사가 자신의 남편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립협회’ 주관으로 조의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여 이 죽음을 공론화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독립신문』 1898년 11월 29일의 잡보에서는 장례비로 100원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인용문 ③에서는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른다고 알리고 있다. 여기에 주축이 된 단체는 당연히 독립협회이며, 종로에서 모여 쌍룡정으로 함께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광경을 보다 자세히 묘사한 『독립신문』에 따르면 큰 상여를 마련하여 입관하였으며, 명정에는 ‘대한제국의사광산 김공덕구지구(大韓帝國義士光山金公德九之柩)’라 하였다고 한다.⁴⁶⁾ 인용문 ④에서는 독립협회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당시 경무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④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죽음의 수사를 부각시킨다. 특히 두 번의 장례식을 거치면서 조의금을 걷거나 수많은 군중이 상여 뒤를 따르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의 축문과 일종의 투쟁가까지 등장

45) 『민일신문』185, 1898. 12. 3. 잡보

46) 『독립신문』, 1898. 12. 5.

시킴⁴⁷⁾으로써 가난한 신기료 장수를 충군애국심이 가득한 ‘의사’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반면 ‘리유인’과 ‘마준영’은 김덕구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기사화된다. 법부대신 ‘리유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홍재관’(『미일신문』⁴⁵호부터는 홍지욱으로 이름이 바뀐다)이라는 사람과 집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사건의 발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직주하던 류원오가 남의 빚이 티과호야 집문서를 여러 곳에 잡혀 먹고 도망호여 다니다가 김소사의게 쇼부가 만든 고로 한성 지판소 설시째에 정장을 만나 여러 달 갖췄다가 돈을 판급지 못하고 집으로 쳐맛긴 즉 김소스가 그 집을 맛타스나 류가가 문서를 일렀다 호미 지판소에 쇼지호고 입지를 니여 홍지관 씨의게 팔았는디⁴⁸⁾

즉 홍재관이 류원오에게서 산 집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김소사’라는 인물이 개입되어 있고 또 류원오가 여기저기 맡긴 집 문서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나 하는 데 있지 않다. 법부대신인 ‘리유인’⁴⁹⁾이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티명식’을 책망하고 그 집 앞뒷문을 첩박아 버렸다는 것과 이 과정에 ‘마준영(티명식에 이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사건에 참여)’ 판사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홍지관’은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미일신문』 기사는 두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47) 이에 대해서는 『독립신문』, 1898년 12월 5일 기사 참조

48) 『미일신문』⁴⁰, 1898. 5. 25. 논설

49) 『서울 六百年史』에 따르면 리유인은 구한말 여러 벼슬을 거친 문신이다. 특히 그는 고종이 대한제국 국호와 광무 연호를 제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1900년 을미사변의 원수 갚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후 배일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 六百年史』,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 참조. 그런데 『미일신문』에서는 리유인을 파렴치한 인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반정동 흥지관씨의 집 일절노 범부대신이 그 집을 첩박았다는 말은 전호에 기지하였거니와 그적게 고등지판쇼에서 흥씨를 잡아 가두었는디 흥씨가 무슨 일노 가두았는지 알너고 청원서를 올넛더니 빅퇴호고 밧지 안는다니 범부대신이 빅성의 집을 첩박고 또 주인을 가두는 장정이 근 일에 시로 낫나 보더라⁵⁰⁾

이 사건은 결국 독립협회와 ‘리유인’ 및 ‘마준영’의 다툼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미일신문』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45호 잡보, 46호 논설 및 잡보(잡보에 관련 기사 3건이 한꺼번에 실려 있다), 47호 논설, 51호 논설 및 잡보(2개의 기사가 실려 있다) 등에서부터 53호, 54호, 55호, 57호, 58호, 61호, 63호, 64호, 73호, 78호 등에 이르기까지 ‘리유인’과 ‘마준영’에 대한 비판 기사는 계속 이어진다. 결국 리유인과 마준영이 각각 해당 직을 물러나지만 그 이후에도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역시 ‘옳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기사들이 단순히 계몽적인 성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기본적으로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기사에 크게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그만큼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사의 배치와 당시의 여러 가지 문맥을 고려한 텍스트 읽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비품의 어투와 풍자의 가능성

『미일신문』의 기사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특정한 의도로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계몽의 논리로 보이는 글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

50) 『미일신문』40, 1898. 5. 26. 잡보

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동촌 사는 한씨라 하는 량반이 병환이 지중하야 사지벽히에 기운이 업는지라 그 증세를 살핀즉 중초가 격하야 상초 기운이 하초에 통하지 못하고 하초 기운이 상초에 오르지 못하니 그 함함한 경상은 위티함이 호흡에 잇더라 ○한씨의 큰 증세는 본리 효성이 일호도 업서부모의 병환에 초민한 마음이 잇기는 고사하고 부모의 지물이 나 도적하엿다가 화초월석에 기성의 오입이나 하고 잡류를 추축하야 풍악이나 질탕하다가 조국의 집에 도라가면 조국의 처즈나 다리고 성시지락이나 즈미있게 지낼 제 부모의 병환이야 알 묘리 잇나 ○한씨의 어린 증세들이 밥 먹으면 비 부르고 옷 입으면 죠와라고 화풍란일 싯등산에 싯가지나 희롱하다가 부모의 병환이 공극하야 속광 디경이 되엿다는 말을 듣고 부모 스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야 손에 들엇던 싯가지를 싸에 더지고 울며 불으며 전지도지하야 부모의 병석에 이르러 낮이나 밤이나 시탕히기에 골몰하더라 ○그 어린 증정에도 효성이 지극하야 집중을 바로 하였던지 런일 약 네 텨를 써스되 중초에 격한 기운이 아주 통하지 못 하였는지라 그 어린 증세들이 침석이 불안하야 또 무슨 약을 쓰던지 부모의 병환이 회춘 하시기 전에는 리측을 안이힐 모양이라더라 ○근일에 큰 증세들도 어린 동성의 도터한 효성을 감동하야 부모의 병석에 나아가 혹 약도 권하며 집중을 심싯히 하니 한씨의 중초에 막혔던 체증이 거의 나릴 듯하도다 그 증세의 여러 분 효성이 이러케 극진하니 필경 하늘이 감동하야도 한씨의 병환이 쾌히 평복이 되어 활동한 기운과 윤택한 기부가 전보다 비나 더 하리라고 말들 하더라⁵¹⁾(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은 표면적으로는 효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유교적 교훈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씨’는 ‘대한제국’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티함이 호흡에 잇’다는 한씨의 병환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를 비유한 것이며 ‘한씨’의 신

51) 『민일신문』171, 1898. 11. 17. 잡보

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중·하초는 각각 임금과 관리(대신), 백성을 의미한다. ‘한씨’ 병의 원인이 중초에 있다는 것은 곧 당시 정부 관리들을 비판하는 것이며, 부모의 위급함을 듣고 전지도지(轉地倒地)하며 달려오는 어린 자제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린 자제가 밤낮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약 네 첩을 썼다는 구절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일신문』 165호와 168호, 170호에서는 각각 논설 자리에 만민공동회 1, 2, 3차 소본을 게재하고 있으며, 위 인용문이 실린 171호에 4차 소본을 실어 놓고 있어, ‘약 네 첩’은 곧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인용문의 뒤에는 또 다시 만민공동회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171호의 지면의 기사 배치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모의 병에는 관심없이 오직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큰 즈제’는 곧 ‘중초’에, ‘어린 즈제’들은 하초에 대응된다.⁵²⁾ 그렇지만 ‘어린 즈제들’의 극진한 간호에도 부모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그 병의 근원이 ‘큰 즈제’에 있기 때문이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부모의 병은 회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즈제’들은 끝까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고(이는 고종의 거듭된 조칙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를 해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즈제’가 회심하여야만 부모가 병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희망 사항일 것이다. 거기에는 ‘즈제의 쳐즈나 다리고 심시지락이나 즈미잇게 지닐 제 부모의 병환이야 알 묘리 잇나’라고 ‘큰 즈제’를 비꼬는 어투는, ‘부모의 병색에 이르러 낮이나 밤이나 시탕헝기에 골몰’한다는 애정어린 어투와는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와 같은 어조의 차이가 당시 『민일신문』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52) ‘큰 즈제’는 단수이며 ‘어린 즈제들’은 복수임을 유념하여 보면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태도는 동물담과도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

근리에 귀우당이라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굉장하고 수목을 만이 심었는디 씨가 정히 여름이라 귀우당이 아침을 먹은 후에 뜰에서 완보하더니 우연히 싸흙 굽어보니 검은 줄 하나히 길게 느껴 노릇거늘 놀나 자세이 살펴 보니 거문 기암이 여러 천만 마리가 기여 가는디 날피는 두어치 지음 되고 기리는 섬돌 밋히셔부터 십여 보 밧기 큰 괴화나무 밋까지 굶는지라 혹 쌍으로 가며 혹 삼삼오오이 작디하야 가는디 정정 유조하야 조금도 향오를 일치 아니 하고 일정흔 규칙이 잇서 하나라도 차착됨이 업스며 - 중략 - 귀우당이 이옥이 보다가 우연이 탄심함을 씨닷지 못하야 ㄱㄹ디 니가 이왕에 기암이가 흥진하디는 말을 글에서도 보았고 이약이도 들었더니 오늘날 이거슬 보니 과연 그러하도다 대저 기암이는 일기 미물이로되 그 법률과 규칙이 이러하거늘 사람이 규모가 업스면 엇지 사람이라 칭하리오 도로혀 미물만도 못하거든 하물며 나라는 빅성이 모혀 사는 곳이라 그 나라 속에 법률이 업게 드면 엇지 나라 노릇슬 할 슈가 잇스리오 - 중략 - 다만 인순하며 구츠하야 나라와 빅성은 싱각지 아니하는 관원이 우회 잇는 ㅈㄱㅅ이라 이디로 얼마쯤 지니고 보면 지금은 이전과 달나 빅성들이 남의 나라에 법률이 붉고 문명흔 거슬 눈으로 보고 귀로 드른지라 나를 보고 남의게 비교하면 얼마큼 분하고 붓그러움이 잇슬거시니 빅성의 ㅁㅅ이 다 이러하고 보면 이전 폐단과 압제로 엇지 어거하리오. 법 맞호신 관인네들은 지극히 나라와 빅성을 싱각하야 아모조록 실천 신법 하시기를 웅망하오⁵³⁾

이 글은 ‘귀우당’이라는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개미의 행렬을 보고 국가에 법률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계몽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이야긴 당시의 의정부 찬정 ‘조병식’을 비판하는 기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립협회는 오래 전부터 조병식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었다. 예컨대 『미일신문』17호에서는 조병식의 외부대신 시절 비리를 폭로하고 있고, 35호 논설 역시 조

53) 『미일신문』81, 1898. 7. 22. 논설

병식과 연관되어 있고, 36호 잡보 기사 역시 조병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조병식은 독립협회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존재였었고 그 결과 『미일신문』80호 잡보를 통해 독립협회 회원들은 김귀현, 홍정후, 최석민 등을 총대위원으로 삼아 의정부 찬정이 된 조병식의 사직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⁵⁴⁾ 독립협회 회원들은 조병식이, 충청감사 시절 백성에게 해를 입혔고(호서에 니호야 싱에게 류독호고), 함경감사 시절 방곡령으로 인하여 일본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라에 피해를 입혔으며(만서에 안호야 린방에 초모호며 국가에 이슈호고), 외부대신 시절 조약을 멋대로 맺어 국고에 손해를 입혔고(교섭의 임으로 조약을 천행호야 국고에 손히함이 불선호고), 법무대신 시절에는 혼잡과 부정이 끊이지 않았다(법권을 집호야 호탁함이 낭자호니)⁵⁵⁾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권유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신문』81호의 첫 번째 잡보 역시 조병식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미일신문』82호 잡보에 조병식이 면관을 당하였다는 기사가 실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개미들을 보고 깨우친 기우당처럼 조병식 역시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된다. 구체적인 사건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동물담과 결합하면서 우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미일신문』 잡보의 구체적 인물기사들은 비꼬는 어투로 가득 차 있다.

과천 군슈 길영슈 씨가 치민에 먹음이 업고 지물에만 탐묵흔드는 말은 이루 듣는 디로 기록지 못호거니와 도적을 잡으면 의례히 그 계집을 관정으로 불너들여 종으로 파라 먹는다호니 듯기에 대단히 놀납도다 그

54) 『대한계년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협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조병식이 독립협회 회원의 죄를 거짓으로 엮어매려 하였고, 둘째, 민영준, 박정양, 심상훈, 윤용선 등을 포함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며 셋째, 궁인 엄씨의 봉작을 올려 황후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교, 조광 편, 김우철 역주, 『대한계년사』3(소명출판, 2004), 90~91쪽.

55) 정교, 앞의 책, 91~92쪽 및 『미일신문』80, 1898. 7. 21. 잡보 참조

시아비 죄로 계집씨지 남의 종이 되기도 억울할 뿐 아니라 관장되는 이
가 무슨 년좌 범을 횡횡라는지 사람을 파라 돈을 먹는 일은 일후에 즈
기가 탐장에 몰녀 도적과 동등 죄인이 될 지경이면 그 안희는 또 무슨
년좌죄를 당할년지 알 슈 업다고들 하더리⁵⁶⁾

길영수는 독립협회와 끊임없이 갈등했던 황국협회의 주요 간부이며
보부상의 도반이다. 그러므로 『미일신문』에서 길영수에 대해 이런 비판
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따라서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안희는 또 무슨 년좌죄를 당할년지 알 슈 업다고들 하더리’는
어투는 길영수를 한껏 비꼬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잡보의 특정한 인
물과 관련하여 ‘~알 슈 업다고들 하더리’라는 구절로 끝맺고 있는 기사
들은 거의가 해당 인물을 비꼬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여기서 정치성과 결합한 비꼬의 어투가 풍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대한매일신보』의 강력한 반일 의식
과 결합하여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거부오해> 등의 풍자적 글쓰기
를 가능케 한 것은 아닐까? 또한 당시 신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동물담의 논리가 《금수회의록》 등의 작품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⁵⁷⁾
정치가 사라져 버린 1910년대에 풍자적 글쓰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
실로 미루어 보면 이와 같은 추정이 큰 무리는 아닐 듯하다.

근대 문학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과 연관된다. 풍자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얼리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며
그 중에서도 정치는 풍자의 주류에 속한다.⁵⁸⁾ 그렇다면 근대 계몽기 신
문에서 정치와 연결되어 풍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기사들은 단순히
계몽적 성격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대 문학의 리얼리즘과

56) 『미일신문』83, 1898. 7. 25. 잡보

57) 당시 신문의 동물담과 《금수회의록》 등의 관계는 또 다른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58) 김준오, 「30년대 풍자문학론」, 『한국 현대장르비평론』(문학과 지성사, 1990), 238
쪽.

도 연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IV. 마무리

근대계몽기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공론장에 등장하면서 ‘국문’이 선택되고 새로운 글쓰기가 시작되는 시대이다. 신문으로 대표되는 근대의 매체는 글쓰기 방식을 변화시키고 문화적 바탕을 재구성하여 문학이 근대의 획기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기의 문학과 문학적 현상에 관심을 가진 연구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신문이라는 근대 매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문이라는 근대 매체와 문학과와의 연관을 꼼꼼하게 따지는 연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표면적인 분석에 그치거나 텍스트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되새길 때 이와 같은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근대계몽기의 『미일신문』을 주 텍스트로 하여 당시의 신문 매체의 글쓰기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배재학당의 협성회가 발간한 『미일신문』은 근대적 문명개화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고 ‘국문’은 그 문명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매체였다. 더욱이 자주독립이 근대 문명의 기본적 조건이라 할 때, 청국의 문자인 한문(한자)은 문명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상 그 운명을 다한 채 소멸의 운명을 맞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국문은 필연적인 선택이었고 신문을 포함한 근대적 공론장에서 국문은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문은 ‘시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읽기와 듣기가 혼재하는 현상’, ‘한문과의 착종’ 등으로 당시의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국문’ 글쓰기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문을 발행했던 주체들이 근대 문명을 지향하며 새롭게 형성된 지식인 계층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당시의 많은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들을 근대 문명과 연관지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당시의 신문기사에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반영된다. 표면적으로는 근대 문명을 계몽하고 있는 듯한 글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기사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채 배치되며 계몽적 어투 속에 구체적 인물이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사들은 구체적인 맥락과 역사적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하여 ‘~알 슈 업다 고들 하더라’ 등과 결합되어 있는 기사들은 해당 사건이나 인물을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비꼼’의 어투는 동물담 등과 쉽게 결합하면서 풍자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근대 문학이 필연적으로 리얼리즘과 만나게 되고, 풍자 또한 리얼리즘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당시 신문 기사들은 리얼리즘의 단초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입말과 글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근대적 문체 형성에 크게 관여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근대 문학의 바탕에 접근하는 또 다른 연구 주제이다. 그리고 주로 잡보란에 실려 있는 동물담의 논리가 《금수회의록》 등 당시의 우화적인 작품들과 연관되는 모습 등도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근대 문학이 필연적으로 리얼리즘과 연관된다면 현실적 사건을 다루는 신문기사와 리얼리즘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따지는 작업도 중

요해 보인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주제어 : 근대계몽기, 근대매체, 미일신문, 국문, 텍스트 읽기, 근대 문체,
비꼼, 정치, 풍자, 리얼리즘

참고문헌

1. 자료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독립신문』

2. 참고논저

김봉희, 『개화기 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김준오, 「30년대 풍자문학론」, 『한국 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럼, 2003.

이광린, 「舊韓末 獄에서의 基督教 信仰」,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7.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5.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19, 500년 왕조의 종말』, 한길사, 2004.

이재봉, 「서간의 형식과 고백의 형식-1910년대 고백담론과 관련하여」, 『한국문학논총』40, 한국문학회, 2005. 8. 139~166쪽.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정교, 조광 편, 김우철 역주, 『대한계년사』3, 소명출판, 2004.

정진석, 「협성회회보·미일신문 論攷」, 『한국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채백, 「개화기 한국신문의 간접적 구독방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4,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8. 229~256쪽.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서울 六百年史』,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 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Abstract>

Newspaper Media in the Age of
Enlightenment and Modern Writing
On the Mae-il Shinmun

Lee, Jae-Bong

As the media of newspaper in the Modern Enlightenment Age appeared in the public discourse, the Korean language Gookmoon was chosen and the new writing era was opened. Recently the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literature of this era and literary phenomena, have been greatly increased. However, most of them are limited to superficial analysis in spite of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edia or emphasize the Enlightenment as the result of seeing the text as being separated. In a sense that every writing exists in the context, the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in reading the text.

This study is focused on an aspect of modern writing appeared in the newspapers of the Enlightenment. Among them the main text is Mae-il Shinmun in the Age of Enlightenment. It is intended to specify that on what logic the newspapers including Mae-il Shinmun chose 'Gookmoon'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media influenced on the style of writing. The newspapers at that time were based on the logic of enlightenment on the basis of dichotomy of 'good' and 'bad' and had the characteristics to be inevitably related with politics. As a result, on the newspapers sarcastic remarks appeared and they implied the possibility of satire by combining

animal stories easily. A clue of realism in Modern Korean Literature could be found in a sense that Modern literature inevitably meets realism and satire has inseparable relation with realism.

Key Words : the Age of Enlightenment, modern media, Mae-il Shinmun, Gookmun, reading text, modern literary style, sarcastic remarks, politics, satire, realism